



김기빈 | 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위원 /
중앙지명위원회 위원(ddangkkb@hanmail.net)

분단의 상징이 된 국제하천 임진강(臨津江)

옛 임진고을에서 비롯된 임진강과 임진년(壬辰年) 사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대수(帶水)는 어디?

물각유주(物各有主)라는 말이 있다. 만물은 모두 그 주인이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세상 만물은 각기 이름이 있고, 그 이름마다 제 임자가 따로 있어서 이름값을 하게 되면, 이를 일러 「명실상부(名實相符)」니,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 한다. 우선 사람의 이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바둑계의 유명한 이세돌 기사는 바둑(돌)이 세다는 이름으로도 풀이할 수 있으니 '이세돌'이 아니겠는가. 또 몇 년 전 기상청 예보국장을 지낸 이가 '이천우(李天雨)'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미 그 이름 속에 일기예보에 관한 직업이 함축되어 있는 듯하다. 그런가 하면 이십 몇 년 전 충북 영동군의 금강 상류에서 버스가 강에 추락하였을 때 승객 38명 중 유일하게 생존하였던 분의 이름이 '강유일'이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으며, '시일야방성대곡'의 위암(韋菴) 장지연(張志淵) 선생이 위암으로 돌아가신 일 등 그런 사례는 매우 많다.

이처럼 장황하게 이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바로 역사의 강, 임진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어느 강치고 물굽이마다 사연 없는 강이 있을까마는 임진강이야말로 삼국의 각축장이 된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6.25사변 등등 역사의 순

간순간마다 어둡고 피어린 사연들이 곳곳에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여 역사의 강이라 부르고 싶은 강으로서 특히 임진왜란과 임진강의 사연을 떠올리게 된다.

임진강은 문헌상 대수(帶水), 표로하(瓢蘆河), 표하(瓢河), 호로하(瓠蘆河), 과천(敷川), 칠중하(七重河), 덕진(德津), 낙하(洛河), 교하(交河) 등의 여러 이름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구연강(仇淵江), 신지강(神智江), 강정강, 자제강 등으로, 같은 시 파평면 화석정 부근에서는 멸왜천(滅倭川-메내깎)이라 부르는 등 여러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

이름이 많다보니 그에 따른 사연도 많은 것은 당연지사. 그 중에서 확인된 몇 가지만 여기에 적는다. 칠중하(七重河)는 삼국시대에 부르던 이름인데, 667년(문무왕 7) 신라가 당나라와 더불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칠중성(지금의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 강을 건너 평양으로 진격하였는데, 이 때 강의 물굽이가 심한 것을 보고 당나라 사람들이 표로하, 표하, 호로하, 과천 등으로 불렀으며,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이 강을 칠중하라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대수(帶水)라는 이름은 중국의 한(漢)나라, 위(魏)나라 때 한강을 부르던 이름이라고 하나, 정다산의 《아연



각비》 등에는 대수-임진강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서 '대수'란 우리 국토를 허리띠처럼 두른 강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런 점에서 보면, 한강(본류-남한강)설이 더 타당하고, 이는 현행 하천법상으로도 임진강이 한강의 제1지류에 해당되므로 한강의 하구에서 볼 때 한강과 임진강을 통틀어 하나의 강으로 보고, 이를 '대수'라 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강 본류와 임진강의 문제는 그 지정학적 성격상 중요한 문제이므로 '대수'가 어디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역사학과 지리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역사의 상처가 담겨진 임진강 종돛과 화석정 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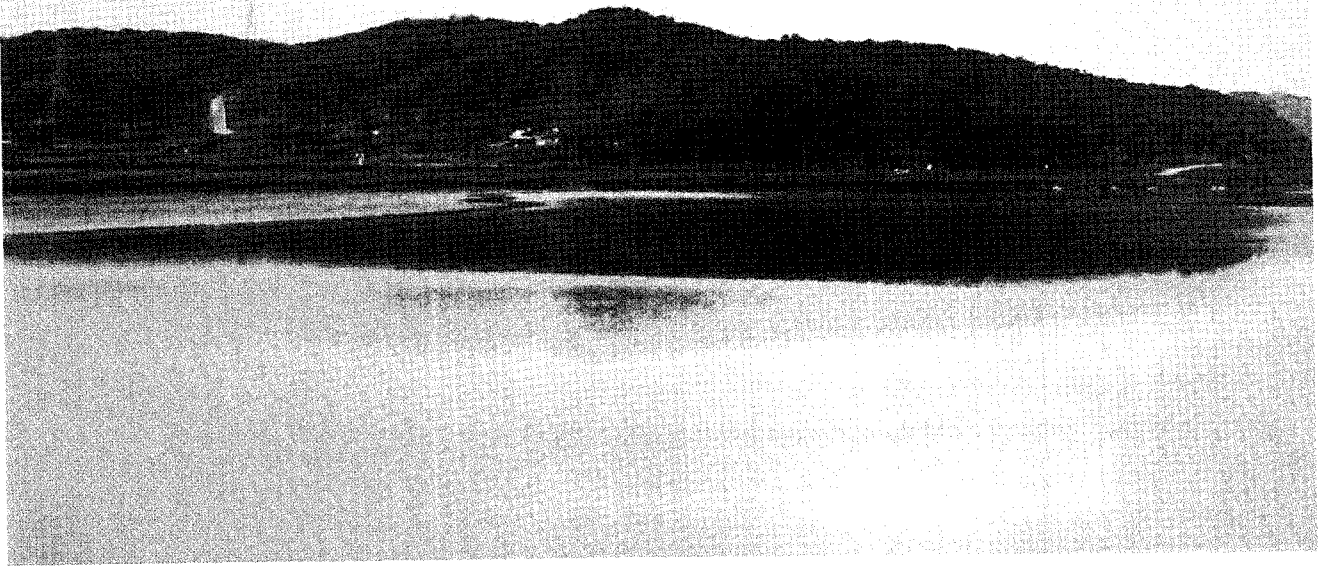
임진강은 함경남도의 마식령(馬息嶺)산맥 아호비령(阿虎飛嶺)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면서 강원도 판교군, 이천군 등에서 고미탄천, 평안천 등을 합하고, 휴전선 철조망 밑을 흘러내리므로 분단된 국토의 남북을 동북에서 서남쪽으로 비스듬하게 관류하는 국제하천의 성격을 지닌다.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에 이르러 동쪽에서 흘러온 한탄강

이 합류하며, 다시 아미리 송의전 앞을 지나고, 파주시에서는 화석정 북쪽을 서쪽으로 휘돌아 흐르다가 문산읍에 이르러 문산천이 합류한다.

다시 갈지(之)자로 남류한 임진강은 대성동 비무장지대를 흘러온 사천강이 탄현면 서북쪽에서 합류한 후 교하읍 서북쪽에서 한강 본류에 합해지고, 황해로 흘러들어감으로서, 멀고먼 여정을 마친다. 길이 244.0km, 유역면적 3,008km²(길이는 북한지역 포함, 면적은 북한지역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길이가 남한에서 4위인 섬진강보다 더 길다.

강물은 그 흐름 자체로 하나의 서사시를 이룬다. 물굽이마다 여러 사연들이 서려있고, 강물은 이를 실어 나르는 문화의 통로가 되는데, 임진강 줄기의 수많은 사연 중에서 몇 가지만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있는 종연(鐘淵-종돛)은 아미산 기슭의 송의전(崇義殿-고려 태조와 임금 및 공신 등의 위패를 모신 곳) 앞의 임진강에 있는 못이다.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은 개성 고려 종묘의 왕실 위패를 배에 실어 강물에 띄워 보냈는데, 이 배가 강물을 거슬러 임진강 상류로 흘러 올라왔다. 그리고 이 강가 태조 왕건의 원찰(願刹)인 앙암



사(仰巖寺) 절 앞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밤 천둥 벼락이 쳐서 앙암사가 폐허가 되어버리는 고사가 일어났다. 이에 마전군수가 조정에 이를 고하자 조정에서는 1399년(태조 6) 앙암사 자리에 고려 왕실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건립케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의 숭의전이라고 한다.

이곳을 종연-종못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때 앙암사가 벼락으로 불타면서 큰 범종이 임진강으로 굴러들어가 물속에 잠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임진강의 종못 설화는 경주시의 대종천 설화, 구례 섬진강의 용두리 설화, 고흥군 중천(고흥천)의 이야기처럼 '종침설화(鐘沈說話)'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소재의 하나이다.

한편 이 강을 따라 조금 더 내려오면 파주시 파평면 울곡리 임진강변에 화석정(花石亭)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곳은 조선 선조 때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이이(李 珣)의 고향으로서 자신의 호 '울곡(栗谷)'도 이곳 울곡리의 이름을 딴 것이다. 울곡은 늘 하인들에게 이 화석정 정자의 기둥마다 "기름칠을 해 두라. 훗날 쓰이는 일이 있으리라."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선생이 돌아가신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년에 임금은 정자를 태워 강을 건너고

선조가 황급히 의주로 피난하는 길에 이곳 임진나루에 이르렀는데, 이때 비는 쏟아지고, 한밤중이라 어두워 강을 건널 수 없었다. 마침 신하들이 서둘러서 이 정자에 올라가 정자에 불을 놓았더니, 대낮처럼 밝아져서 임금 일행이 무사히 강을 건넜다고 한다. 이울곡의 임진왜란에 관한 선견지명은 갑술만언봉사의 '십만양병설'과 함께 여러 가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화석정 이야기는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의 하나이며, 병란이 끝나자 서울로 돌아온 선조는 하사금을 내려 화석정 정자를 다시 세우게 하였다고 한다.

이 화석정 서쪽의 임진강을 '멸왜천(滅倭川)'이라고도 부른다. 글자대로의 풀이하면 "왜적을 멸한 내" 쪽으로 해석되는데, 실제 상황은 그 반대이다. 그 당시 임진강을 지키던 우리 장수들이 왜적의 포입에 빠져 북상하던 왜적을 저지하다가 크게 패한 곳이므로 '멸왜천-메내갈'이라 부른다는 것이다(이 임진강 전투는 문헌상 우리 군사의 패전이 확실하다).

그런데 '임진강(臨津江)'과 임진왜란(壬辰倭亂)은 무슨 인



연이 있는 것일까? '임진강'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조선 세조 때까지 있었던 임진(臨津)고을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본래 고구려의 진임현(津臨縣)이었는데, 757년(경덕왕 16) 임진현(臨津縣)으로 고쳤고, 그 후 병합, 개폐 등을 되풀이하다가 세조 때 장단도후부에 병합된 곳이다.

그강 이름이 '임진'이었기 때문일까?

“서울을 버리지 않겠다.”고 백성에게 약속했던 선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무릅쓰고 북쪽으로 몽진할 때, 백성들은 임금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대감들의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임금 일행이 화석정에 불을 질러 천신만고로 강을 건너게 되었다. 왕이 나루(津)에 임하였기에(臨) 임진이요, 그 일이 임진년에 일어났으니, 이름과 역사가 꾸며낸 한편의 드라마 같다.

휴전선 철책 밑을 흘러온 강물은 언제든지 월남을 단행하는데, 북한 땅을 밝혀줄 광명의 달은 언제나 떠오를 것인가. 임진강은 바로 그 피안과 차안을 나누는 역사의 강인 것이다.



산은 외로운 달을 뱉어 놓고 (山吐孤輪月)

강은 만리 불어갈 바람을 머금었다 (江含萬里風).

이것은 율곡이 8세 때 화석정에서 읊은 시이다.

분단의 땅을 바라보는 화석정.